

한국(韓國) 서원(書院)과 중국(中國) 서원(書院)의 입지·공간구성(立地·空間構成)과 유식공간(遊息空間)에 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김 덕 현**

-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I. 한국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과 유식 경관
- III.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유식 경관
- IV. 한국과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유식 경관의 종합적 비교

【국문초록】

本 研究는 朝鮮時代 韓國의 書院과 中國의 書院을 立地와 空間構成, 그리고 遊息空間의 측면에서 比較 考察하였다. 書院制度는 中國에서 始源하였으나, 儒敎 國家 朝鮮에서 私學으로 繁盛하여 全國의으로 分布하고 最近 UNESCO世界遺産에 登載되었다. 이에 중국 서원과 辨別되는 한국 서원의 固有性和 眞正性を 把握하는 比較 研究가 要請된다.

宗教의 性格을 가진 敎育施設인 書院은 儒敎의 世界觀을 再現하는 立地·空間 構成·景觀을 創出한다. 立地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書院은 共通의으로 學問과 祭享에 適合한 幽閒한 景勝地와 風水思想의 影響으로 山水環抱하는 地形을 立地

* 이 논문은 2022년 5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겸 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전면 재작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 dukhyunk@naver.com

의 기본으로 共有한다. 中國의 著名 書院은 道教와 佛教의 影響으로 名山 名勝에 立地했다. 한국의 書院은 祭享人物의 緣故地를 가장 重視하고 이차적으로 生氣活潑한 風水 形局을 찾았다. 既存 景勝地에 立地한 中國의 書院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書院은 祭享 人物이나 書院 自體의 名聲으로 後代에 景勝地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국의 書院은 展望景觀을 중시하는데, 展望景觀의 類型에 따라 溪景·江景·野景으로 立地를 구분할 수 있다.

서원의 空間構成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書院은 3가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 空間 規模와 制度에서 중국 서원은 그 位相에 따라 差異가 크다. 한국 書院에서 位相의 差異는 祭享 人物에 주로 관련되고, 書院의 외형 規模와 관련이 적다. 둘째, 서원 내부 空間構成에서 한국 書院은 대체로 前低後高 地形 위에서 單一한 軸線에 건물을 位階의 으로 配置하고 그 最高位는 祠堂이다. 중국 書院은 複數의 軸線에 藏書樓-講堂의 軸線과 祠堂群의 軸線이 구분되고, 장서루[御書樓]가 최고위에 해당한다. 셋째, 書院의 威儀와 卓越性 誇示 方式이 다르다. 중국 서원은 石造의 牌坊, 柵欄(照牆), 泮池와 石橋, 壯麗한 御書樓 등으로 位相을 誇示하고 園林과 碑亭으로 品格을 더한다. 한국 書院은 前低後高의 軸線에 簡明하고 位階의인 左右對稱의 建築物 配置, 節制된 植栽와 虛靜의 中庭으로 整齊嚴肅의 禮空間을 具顯한다. 한국의 書院은 威儀와 卓越性에도 人爲의 建築과 造景보다 산과 하천 같은 自然에 依存한다.

한국과 중국 書院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遊息 공간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서원은 대체로 外部 自然景觀 展望이 없고, 境內 庭園이 유식 공간이 된다. ‘背山臨流’ 입지의 한국 서원에서 展望景觀은 儒學者들의 궁극적 이상인 天人合一을 體得하는 현장이다. 서원에서 천인합일의 느낌을 얻도록 한국 서원은 生氣活潑한 自然에 展望을 開放하는 방식으로 유식 공간을 구성하는데, 門樓가 대표적 장소이다. 문루의 堂號는 서원의 展望 景觀 이미지와 부합하는 經傳과 先賢의 말씀에서 가져왔다. 門樓의 堂號는 展望 景觀의 特性和 그 儒學的 含意, 祭享 人物의 精神世界를 三位一體로 담은 記號로 볼 수 있다. 문루 당호로 기호화된 전망경관은 自然과 融合하는 한국의 傳統建築 思想과 한국 서원의 理念인 性理學의 天人合一觀이 결합된 독특한 事例이다.

주제어 : 입지, 공간구성, 유식공간, 전망경관, 문루당호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국의 朝鮮時代 書院 9개가 2019년 UNESCO 世界遺産 連續遺産으로 登載되었다. 중국의 서원도 세계유산에 포함된 것이 여럿이지만, 모두 서원이 입지한 주변의 名山과 관련된 유산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다. 서원의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서원의 이름으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이 유교 특히 性理學의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祭享과 講學 뿐 아니라 立地, 建築 空間構成, 그리고 景觀에서 그 固有性和 眞正性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¹⁾

한국 서원의 固有性에 대한 탐구와 확인은 서원 제도가 발생한 中國의 書院과의 比較研究를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서원 정원과 전망경관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서원의 고유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 서원의 입지 건축 공간구성 및 유식 경관의 특성을 살피고, 비교적 관점에서 중국 서원의 사례를 고찰하여, 조선과 중국 서원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綜合하고자 한다. 고찰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에서 世界遺産에 등재된 9개 서원과 중국의 서원에서는 필자가 답사한 저명 서원과 지방의 서원들을 事例로 하였다.

II. 한국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과 유식 경관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을 선도해 온 문화집단은 神의 世界를 자신이 사는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수록 등재 결정문, 2021,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이다.”

땅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구축해왔다. 그들은 선택된 집단으로서 현재 땅 위에 실현된 신적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문화적 긍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장소를 창출한다. 서양문명에서 고대의 神殿, 중세의 敎會가 그 사례이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사립 교육기관이지만, 先賢 祭享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적 성격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儒敎의 寺院'으로 볼 수도 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神의 의미는 하늘(天理)이 대체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모습은 산수자연(景觀)에서 지각된다. 서원은 天道와 人道에 대한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心性을 함양하여, 산수 자연경관에 드러난 天理를 自得하는 聖學의 장소로 구축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유교 성현의 말씀을 배워서 성인을 지향하는 장소인 서원은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世界像과 精神世界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서원 안팎의 경관을 禮的 공간으로 구성하거나 유학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理想 世界를 현실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再現(representation)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과의 비교 연구의 기초를 검토하는 의미에서,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유식 공간(경관) 3가지 부문에 대한 조선 서원의 특성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입지에서, 조선의 서원은 대체로 제향 인물의 연고지를 선택하고, 연고지에서 산지를 배경

2) 김덕현(「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29-4호 1~21쪽)은 道東書院을 사례로 性理學의 談論-祭享人物의 精神世界-景觀의 三位一體의 結合이 한국 서원의 특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조재모의 연구(「한국서원건축의 유형 정립 과정,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서원학회 주관, 『한·중 서원학회교류 10주년 기념 제7회 동아시아 서원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7, 71~90쪽).

김덕현의 연구(「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1, 2, 문화역사지리 25-2, 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a, b); 「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 29-4호, 2017;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 31-1호, 2019.)

으로 하천과 산을 可視的 거리에서 전망하는(背山臨流) 경사 지형(前低後高)에 입지한다. 산기슭 경사지에서 서원이 하천과 접하는 방식에 따라 한국 서원의 입지 유형을 시내를 바라보는 溪景과 큰 강을 바라보는 江景, 그리고 전면에 들판을 두고 멀리 강이나 시내를 바라보는 野景으로 나눌 수 있다.⁴⁾

건축 공간구성에서, 한국 서원의 대체로 前底後高의 自然地形을 활용하여 단일한 軸線에 祭享-講學-遊息 공간이 位階的으로 배치되는 定形性을 보인다.⁵⁾ 서원 내부 정원 조성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전면을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서원 외부의 자연경관을 서원 내로 끌어들이면서 전망되는 自然景觀을 遊息 空間으로 삼는다. 자연경관을 전망하는 서원의 門樓나 臺의 이름은 전망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교적 개념어를 채택했다. 전면의 자연경관을 유식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서원에서 조선 유학자들은 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天人合一’을 서원 내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鳶飛魚躍’의 체험, ‘物我同體’의 느낌으로 ‘천인합일’을自得하는 장소로 서원의 입지를 선택하여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문루와 정자 그리고 臺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天地와 그 德을 함께하는 聖人을 배우고,⁶⁾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사람이 얻어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⁷⁾라는 유교적 世界觀 自然觀을 공간에 再現한 장소라는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4) 필자(앞의 논문, 2011)는 서원이 자주 보는 案對 景觀의 특성에 따라 野景 山景 江景 溪景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山景은 하천과 접하는 방식에서 보면 큰 강과 작은 시내(溪)로 나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江景 溪景 野景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5) 조재모, 앞의 논문, 2017, 87쪽, “중국과 일본의 여러 유학 교육시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원이 갖는 가장 뚜렷한 건축 특징은 서원 사이에 공유되는 건축 정형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제향, 강학, 회합과 유식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으로 구현하여 이들 기능을 따로따로 인식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공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의 측면으로 인식하였으며, 외부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드려 자연과 건축이 통합되는 완벽한 정형을 만들어내었다.”

6) 周敦頤, 『太極圖說』,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7) 『朱子語類』 권 105, 〈仁說〉,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大學이 추구하는 藏修와 遊息의 완벽한 현장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⁸⁾

조선의 서원을 유교의 세계관을 재현한 상징적 공간이라고 보면, 서원의 공간구성과 경관은 그 함축적 의미를 텍스트처럼 독해될 필요가 있다.⁹⁾ 즉 서원의 공간구성과 경관은 그 가시성과 물질성을 통해서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와 가치관을 自然的인 것으로 正當化하고 그들의 사회적 행위禮의 실천을 지도 규제하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수행하는 記號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입지, 건축 공간구성, 그리고 유식 공간으로서 서원의 자연경관을 고찰하여 서원 제도가 기원한 중국의 서원과 비교되는 한국 서원의 固有性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입지

立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효율적인 공간적 위치 선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지는 기능의 수요(방문자)와 공급(관리자)에 대한 공간적 ‘接近性’ 차원에서 평가된다. 그러나 유교의 교육·제사 기관인 서원은 입지론 일반의 ‘접근성’ 보다는 유교의 藏修遊息과 先賢祭享이라는 본원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입지를 중시한다. 특히 서원의 학생은 대부분 士大夫 계급으로 훌륭한 배움을 위해서는 먼 곳을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資產 有識 계층이었다. 따라서 유명 서원이나 현인으로 알려진 유학자를 찾아가서 그 문하에서 함께 노닐며 배우는 것을 遊學이라 불렀다.¹⁰⁾ 조선 서원의 경우, 서원 설립의 일차적 계기가 先賢 祭享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보다 제향하는 선현의 緣故地가 우선이다.

8) 『禮記』 제18장 〈學記〉, “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9) Duncan, J.,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en kingdom*, Cambridge univerity press, 1990, pp.11-13.

10) 『孟子』 〈盡心〉 上. 24~1, “孟子曰 孔子 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二次的 서원 입지 요소는 장수와 유식에 적합한 자연환경이다. 조선 서원 입지의 기본적 조건은 제향 인물의 연고지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장수유식에 적합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¹¹⁾ 초기 서원 창설운동을 주도한 退溪 李滉은 周世鵬이 창건한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조정에 上奏하도록 경상감사에게 요청하는 편지에서, 官學인 鄕校와 달리 서원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하고, 先正의 자취가 남아 있는 연고지에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¹²⁾ 이는 조선시대 한국 서원 입지의 공간적 범위와 환경적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퇴계는 白鹿洞書院의 입지에 대한 朱子의 정의, 곧 서원은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로부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야, 隱遁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著述하기에 좋다는 주장을 따랐다.¹³⁾

1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2021, 61쪽;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敬의 空間’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5호(통권7), 1986, 43쪽.

12) 『퇴계선생문집』 권9(書), 〈上沈方伯通源〉, “... 무릇 왕궁과 수도로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서원이 없는 곳이 없었으니 서원에서 취할 이점이 무엇이지요 중국에서 저토록 숭상한단 말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덕을 쌓고 仁을 익혀 이것으로 樂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습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科擧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은 것입니다. 옛날 밝은 군주는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다투어 본받아 진실로 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우리 동방 文教가 크게 밝아져 鄒魯나 閩越과 더불어 훌륭한 나란히 일컫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주자와 조선의 퇴계는 공통적으로 서원은 官學인 향교와 달리 도시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산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科擧와 같은 立身出世의 유혹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특히 퇴계는 서원 입지 조건에 선현의 연고지를 추가하였다. 특정 유학자를 祭享하고 제향 인물의 학문적 연원과 정신세계를 따르는 한국 서원의 전통은 선현의 연고지에 서원 건립을 주장한 퇴계의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주자와 퇴계의 書院觀에 따라, 서원을 창설한 후대의 조선 유학자들은 도회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적하면서도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학문을 닦고, 사당을 지어 경모하는 先賢을 祭享하는 것을 조선 서원교육의 전통으로 삼게 되었다.

중국의 유명 서원은 禪宗 佛教의 영향을 받아 名山과 같이 이미 알려진 勝地에 입지했다 한다.¹⁴⁾ 그러나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이미 알려진 경승지를 구하지 않고, 제향 인물의 연고지 공간 범위 내에서 장수유식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경관 구성과 서원의 명성을 통해서 후대에 경승지로 알려지도록 노력했다. 경승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한반도의 고유한 지리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험하지 않은 산지와 크지 않은 시내가 얹힌 山間溪谷이 많은 조선의 지형에서, 반드시 이름난 勝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藏修遊息에 적합한 장소를 구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이 많이 창설된 嶺南 지역은 산간계곡이 많은 지형이다.

셋째, 서원의 구체적 장소적 위치 선택에 風水形局論이 활용되었다. 대체로 산기슭에서 시내를 앞에 두는 背山臨流 입지는 ‘藏風得水’ 형국으로 표현된다. 得水에 치우치면 수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을 쉽게 구

13) 『朱子大典』 권99, 〈白鹿洞牒〉, “그 사면 산수를 보면 깨끗하고 깊은 것이 빙 둘러 합쳐지고, 저잣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며, 시원한 샘과 돌이 아름다운 곳이니, 진실로 모여 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자취를 숨겨서 글을 쓰는 곳이다.” (觀 其四面山水 濤濤環合, 無 市井之喧, 有泉石之勝 群居講學遜迹著書之所)

14)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하면서도 산이 둘러서서 겨울바람을 막아주어 따뜻하고 氣를 온축하는 최적 입지는 다양한 形局으로 설명된다. 形局論을 주로 하는 조선의 풍수는 坐向에서 南向을 고집하지 않고, 山水環抱하면서 전망되는 산수 경관에서 느껴지는 生氣를 중시한다. 여기서 입지 형국의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고, 지나친 점은 막아주는 조선 풍수의 裨補翫勝 기법도 활용되었다.

2.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

서원의 입지가 정해지고 주위 산수와의 조화로운 관계로 坐向이 결정되면, 서원 건축물의 배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이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이다. 한국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은 16세기 중반 紹修書院 창건(1543년)에서부터 濫溪書院(1566년) 玉山書院(1572년) 道東書院(1604) 屏山書院(1614) 등에서 그 典型性이 형성되었고, 17세기 전반에 이르면 ‘定形’이라 부를 수 있는 서원 건축 공간구성이 나타난다. 조선 서원의 定形性은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位階의 공간구성이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특성인 祭享 중시를 반영하여 서원 공간에서 祠堂을 가장 높은 위계에 위치시키고, 그 아래에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한다. 유교의 교육기관으로서 서원 공간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世界觀과 價値觀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유교의 가치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의 하나는 ‘克己復禮’이다. 조선시대 서원 공간은 ‘극기복례’의 仁이 가시적 공간구조에서 재현된 禮空間으로 독해할 수 있다. 克己는 내면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道心을 추구하는 것이며, 復禮는 외면의 행동을 天理의 法道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克己에 관련된 기호 경관은 서원 건물 堂號에서 나타난다. 조선 서원의 禮的 秩序는 경사진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제향-강학-유식 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원 공간에 再現되었다.

둘째, 한국 서원은 단일한 중심 축선에 건물을 左右對稱으로 배치하여 簡明과 質朴 그리고 虛靜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整齊嚴肅의 禮 공간을 구현하

었다. 성리학의 수양 방법은 主敬 涵養이다. 敬을 지키는 방식은 내면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수렴하는 主一無適과 외면으로 용모와 행동을 단속하는 整齊 嚴肅이다.¹⁵⁾ 대체로 前底後高 지형에 입지하는 한국의 서원은 중심 축선을 두고 좌우대칭하는 간명한 건축 배치로 整齊嚴肅을 재현한 경관으로 읽을 수 있다. 또 서원 내부 공간구성에서는 최소의 造景으로 質朴하게 하고 중앙에 위치한 마당(中庭)은 최대한 비움으로써 虛靜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축선에 좌우대칭의 簡明한 配置, 質朴한 造景과 虛靜한 中庭으로 구성된 조선 서원의 내부 공간은 整齊嚴肅의 분위기로 이끌어 마음을 하나로 수렴하여 밝게 통하게 하여 마침내는 公辨되고도 넓은 성인의 경지를 지향하는 明澄의 장소로 읽을 수 있다.¹⁶⁾

셋째, 조선 서원에서 위계적이고 엄숙정제한 禮 공간은 획일적이고 인위적 건축 공간구성이 아닌 서원이 처한 다양한 여건에 따라 變容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서원의 공간 규모에서는 壯大한 威嚴이 아닌 ‘인간적 척도(human scale)’로 조선의 전통 민가에 온 듯 친숙하다. 『禮記』에, “樂은 천지의 화합

15) 『二程集』上「遺書」卷15, 〈伊川先生語一〉, 中華書局, 1981, 150쪽, “사특함을 막으면 참으로 마음이 전일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를 주로 하면 사특함을 막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를 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공부에 힘 쓰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나를 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정제하고 엄숙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저절로 옳지 못하고 편벽된 간소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함양하기를 오래토록 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질 것이다.”(閑邪則固一也 然主一 則不消閑邪 有以一爲難見 不可下工夫何也 一者無他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一則自是無非僻之奸 此意但涵養久之 則天理自然明)

16) 『通書』〈聖學〉20, “聖可學乎 曰 可 曰 有要乎 曰 有. ‘請聞焉’. 曰 一爲要. 一者無欲也 無欲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庶幾乎.” 中庭에 식재나 장식을 최소화하여 비움의 공간으로 하는 생태학적 근거는 계절에 따라 寒暑의 차이가 큰 한국에서 微氣候를 조절하는 전통적 지혜로 설명되기도 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빨리 가열된 앞의 마당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서원 후면의 숲에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이며 禮는 천지의 질서이다.”(樂者 天地之和也 禮者, 天地之序也 -19편 「樂記」) 하였는데, 주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의 節文이다. 절이란 등급과 차별이고, 문은 꾸며진 격식이다.”(禮者 天理之節文 節謂等差 文謂文彩 -『論語集註』, 顏淵)라고 설명한다.¹⁷⁾ “禮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禮者履也 -『說文解字』)인데, 꾸밈[文彩]의 디테일이 없다면 엄숙하기만 해서 자연스러운 실천이 어렵다.¹⁸⁾ 禮는 등급에 따른 위계적 질서이지만 그 실행에서는 서원이 처한 구체적인 자연적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조성된 특성이 개별 서원의 공간구성에서 보인다.¹⁹⁾ 평지에 입지하여 사당과 강당의 고도가 비슷한 筆巖書院은 강당과 사당 사이에 中庭을 두고 중정의 좌우에 齋舍를 배치하는 前堂後齋의 방식을 택하여, 사당을 항상 바라보도록 해서 사당에 대한 존중을 서원 공간구성에 반영했다. 屏山書院은 사당을 강당의 후면 동쪽에 비껴 배치함으로써, 등 뒤에 사당을 모시는 송구함을 덜었다. 前底後高 지형의 경사도가 적고 사당과 강당이 인접한 玉山書院은 정문에서 문루-강당-사당까지 시선이 하나로 관통되도록 건물 간 거리를 잘 계획하여, 整齊嚴肅한 내부 공간을 구현하였다. 서원 경내공간이 협소한 武城書院은 강당 대청의 후면 3칸을 모두 개방함으로써, 문루와 중정에서 사당이 막힘없이 크게 보이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급경사의 지형에 맞배지붕의 건축물을 완벽한 좌우대칭과 위계적으로 배치한 道東書院은 정제엄숙한 서원 공간에서 느껴지는 지나친 긴장을 풀도록, 정문(喚主門)-강당-사당에 이르는 좁고 경사진

17) 성백효,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3, 490쪽, 節文의 節은 절도(제한과 등급), 文은 격식(의장과 조리)으로 설명된다.

18) 『論語集註』 권1 〈學而〉 12. “예의 본체가 비록 엄하기는 하나 자연 이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작용은 반드시 중용하고 각박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和者 從容不迫之意 蓋禮之爲體嚴而皆出於自然之理 故其爲用 必從容而不迫 乃爲可貴)

19) 김영모,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2005, 136쪽, 藏修遊息이 서원에서 병행되어야 하는데, 장수 공간은 장수의 긴장을 유식을 통해 풀고 유식은 장수로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서원에서 장수와 유식 공간의 관계를 ‘긴장과 이완’의 균형으로 보기도 한다.

진입로 곳곳에 소박한 장식 조각 등의 디테일을 조성하여 餘裕와 諧謔을 배려했다. 조선 서원에서 자연스러운 禮 실천을 돕는 이러한 꾸밈[文彩]은 화려한 정원 조성이나 壯麗한 건축물이 아닌 자연환경에 조화된 소박한 디테일로 구현되었다. 한국 서원의 공간 규모는, 위엄을 과시하는 壯麗함을 추구하지 않고,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인 人體의 배수 크기로 환원될 수 있는 공간 규모로 사람의 소통과 생활에 친숙한 ‘인간적 척도(human scale)’로 설명된다.²⁰⁾

3. 자연·정원·경관에 대한 해석

자연은 서원 문화의 중심인 중국과 한국에서 天地萬物의 活潑한 생명이 발현되는 현상이며, 無慾의 審美 대상이다. 나아가 天人合一의 仁을 自得하는 교육장이다. 따라서 서원과 자연경관의 관계는 藏修遊息하는 배경 이상으로 중요하다.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어의 'physis'는 자연을 의미했는데, 이는 전체 또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세에는 자연은 변덕스러운 현세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근현대에 들어서는 시골과 野生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야생지로서 자연은 더이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잃고 시골 풍경과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근대 서구에서 위력을 상실한 자연을 대신해서 시각적 형태를 통해서 매력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가진 풍경 혹은 경관이 우주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²¹⁾

景觀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관이란 말은 전망 혹은 ‘그림 같은 장면’이라는 점에서 ‘자연’이나 ‘풍경’이란 말과 의미를 공유한다. 네덜란드어 ‘경관(landschap)’의 원래 의미는 농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경지, 때로는 소규모의 영역, 행정단위를 뜻했다. 경관이란 용어는 16세

20) 임석재,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컬처그래퍼, 2011, pp.196-215.

21)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132쪽.

기 말 영국에 건너간 다음 땅에 뿌리박은 실제적 의미를 떠나 예술 영역에서 귀중한 의미를 얻게 된다. 경관은 특정한 문화적 입장에서 보는 전망을 뜻하게 된 것이다. 객관적 위치를 의미하는 입지와 달리, 경관은 어떤 '자세' 혹은 '시각'에서 본 '場面'을 말한다. 경관은 주체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한 세계의 모습과 충분히 통합된(fully integrated with the world of make-believe)" 전망이다.²²⁾ 따라서 경관이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문화집단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한 모습으로 재현된(represented) 자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전망의 예술적 재현으로 인식되고 공식적 초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창출한 자연(경관)을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정원에 대한 관점은 동-서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서로 크게 다르다. 정원은 특정 문화집단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한 모습으로 재현된(represented) 자연경관이라는 의미에서 '경관식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에는 특정 문화집단의 우주론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기독교 수도원의 정원은 명상의 장소로 'Eden의 지리'를 상징한다. 경관식 정원은 근대 서구에서 '특권적 전망'을 강조하면서 직선 경로와 가로수, 선형의 연못을 활용해서 먼 수평선까지 눈에 들어오도록 축선의 시야를 확장하였다. 19세기 영국에서 '풍경식 정원'으로 알려진 정원 조성은 고상한 삶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창조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문 앞까지 들여놓는 일이었다.²³⁾

정원은 중국과 한국에서 매우 다른 의미와 위상을 가진다. 서원에서도 중국의 서원이 서원 내부에 정원을 유식 공간으로 조성하지만,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내부 공간은 비우고, 전망되는 외부 자연경관을 유식의 대상으로 삼아 내부 정원 조성을 최소화하였다. 중국의 정원은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

22) Yi-Fu Tuan, 1974, 앞의 책, 133쪽.

23) 헤르만 폰 뤼클러무스кау 지음 권영경 옮김, 『풍경식 정원』, 나남, 2009, 33쪽.

하는 도시의 직선에 상반되는 자연스럽게 굽어진 사잇길이 이어지는 경관을 창출한다.²⁴⁾ 중국인에게 정원은 현실의 가혹한 외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상대적 자유로 들어가는 逃避의 장이거나, 驚愕 異境感 혹은 衝擊을 받아서 陋習을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로 나가는 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²⁵⁾ 한국에서 전통 정원은 자연경관이 主가 되고 인공 경관은 從의 위치에 있다고 표현되거나,²⁶⁾ 자연경관을 빌려오거나 인공적인 정원이 아니라 ‘자연을 경영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공의 연속과 융합의 장으로 이해된다. 한국식 정원을 전통 건축과 결합된 자연경관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프랑스 건축가 협회장 Laurent Solomon이 한국을 방문하고 언급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할 만하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이고 풍경이다.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 위에 그냥 얹혀 있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은 미학적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²⁷⁾

한국의 서원에서 자연경관의 중요성은 앞에서 인용한 전통 건축의 특성과 함께 조선 서원 건립을 주도한 성리학의 자연관과 세계관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서구나 중국에서 특정 문화집단의 바람직한 세계관을 자연의 형태로 건축 공간 정내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을 정원이라고 보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에서는 자연과 융합된 조선식 전통 건축의 특성 위에 성리학이 추구하는 天人合一의 이미지를 전망 경관에서 발견하는 것이며, 生生하는 無作爲의 자연풍광을 서원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전망

24) Yi-Fu Tuan, 1974, 앞의 책, 138쪽.

25) Jacques Benoist Mechin 著, 河野鶴代・横山 譯, 『庭園의 世界史』, 講談社學術文庫, 1998, 45.쪽

26) 허균, 『한국의 정원』, 다른 세상, 2002, 25쪽.

27) 휴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 (주)창비, 2017, 217~218쪽에서 재인용.

경관은 인간이 자연에 합일한다는 의미에서 자연풍광 그 자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가치관을 재현하거나 자유로운 정신 경지를 맛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창출한 ‘경관식 정원’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산수 자연과 合一하는 입지와 경관이 조선 서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은 조선 서원창립 운동을 주도한 退溪의 사상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서원 교육제도 연구를 개척한 丁淳睦은 조선 서원의 고유성을 퇴계가 제기한 ‘환경의 교육성’과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2개 측면의 결합에서 찾았다. 주자가 각종 규제에 얽매임(學令之拘碍), 과거에 얽매임(科擧之累), 저잣거리의 소란함(世之囂)에서 해방되는 ‘교육의 자율성’에 주목한 것과 달리, 퇴계는 ‘교육의 자율성’과 함께 ‘환경의 교육성’을 강조했다. ‘환경의 교육성’이란 유학자의 ‘樂山樂水’를 말한다.²⁸⁾ 퇴계는 산수 자연을 대상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理와 氣가 합하는 자리,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는 자리로 본 것이다. 정순목은 퇴계의 산수 자연에 대한 物我一體의 格物은 敬에 의하여 종교론적 상태로까지 이른다고 주장했다.²⁹⁾

서원을 주도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易傳』과 『中庸』에 근거하여 天地萬物이 生生하는 장으로서 자연에 天의 의미를 부여해왔다. 자연경관의 중요성은 퇴계가 강조한 ‘환경의 교육성’에서도 확인된다. 서원 주위의 生生하는 자연경관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자리라는 유학적 근거는 『周易繫辭傳』에서 비롯하여 程顥의 ‘物我一體論’, 朱子の 仁說에 자세하다. 『易傳』의 “천도의 운행은 건전하고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周易乾卦 象傳』)는 자연으로서 天을 의인화하여 인

28) 『退溪全書』 권 17 〈自省錄〉, ‘答權好文論樂山樂水’에서 퇴계는, “산수를 즐긴다는 것(樂山樂水)”은 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仁과 智의 씨앗을 닦고 기쁨으로써, 그 기상과 의사가 비슷한 산과 물을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산요수는 산과 물이라는 물질적 대상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仁’과 ‘智’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니라, ‘仁’과 ‘智’로 마음을 채운 사람이 산수를 만나 의기 투합하여 즐거움으로 표출되는 인격 경지임을 밝혔다.

29) 丁淳睦, 1979,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65~66쪽.

간사에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 “날로 새로운 것을 성대한 덕이라 하고, 낳고 또 낳는 것을 역이라 한다.”(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繫辭傳』上5)³⁰⁾ 는 생이 곧 천지자연의 운행 원리인 易이 된다는 것이다. 또 “천지가 베푸는 크 나큰 공덕이 일러 생이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繫辭傳』下1) 하여, 천지 자연에 도덕적 품격과 약동하는 생명체의 본성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친근한 감정과 심미적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天道 곧 誠을 만 물을 낳고 기르는 자연 현상에서 발견하도록 고무하여 정감적 천인합일의 길을 열었다.³¹⁾

明道 程顥(1032~1085)는 “낳고 낳는 것을 易이라 하는데, 이것이 천이 도가 되는 까닭이다. 천은 단지 삶(生)을 도로 삼을 뿐이다. 이 삶이라는 이치를 이어가는 것이 곧 선이다.”(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爲道也 天只是以生爲道 繼此生理者只是善也 -『程氏遺書』권2上)하였다. 천지의 ‘끊임이 없이 낳고 낳는(生生不息)’ 生道を 易의 내용[天道]으로 밝히고, 이러한 이치를 이어가는 일을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善[人道]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천지가 자리를 베풀면 역이 그 가운데서 행해진다.”(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 -『程氏遺書』「明道先生語」2) 하여, 天道가 발현되는 현상이 천지자연임을 천명한다. 陶山書院의 전망대 天淵臺와 天光雲影臺는 서원 앞 낙동강을 바라보며 은미한 天理[天道]가 활발히 유행하는 현상을 體認하는 자리이다.

정호는 “천지의 변함 없음은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퍼져 퍼져 있기 때문

30) 『易傳』「繫辭」上5.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至矣哉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謂事 陰陽不測之謂神.”

31) 楊軍 王成玉 譯, 『程頤講易傳 - 白話伊川易傳』, 長春出版社, 2010, 135쪽, “망령됨이 없는 것(无妄)이 지극한 誠이다. 지극한 성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기르는데 끊임없이 낳고 낳아 각각 그 올바른 본성과 운명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无妄이다. 사람이 이 无妄의 道와 합일할 수 있다면 이른바 ‘천지와 그 덕을 합일하는 것’이다.”(无妄者 至誠也 至誠者天之道也 天地化育萬物 生生不窮 各正其性命 乃无妄也 人能合无妄之道 則所謂 ‘與天地合其德也。’)

에 치우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無心)이다. 성인의 변함 없음은 그의 감정이 모든 사물에 순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에만 정을 쏟지 않는 것(無情)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모든 것에 대해서 확 트여 크게 공정하며 사물에 이르는 대로 그에 순응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二程全書』 「答橫渠張子厚先生書」) 하였다. 천지자연과 성인의 마음을 사사로움이 없는 無心 無情로 표현하고, 이를 따르는 군자의 학문을 ‘확 트여서 막힘없이 정연하여 공명한(廓然而大公) 情景’으로 그렸다. 筆巖書院의 門樓 廓然樓에 오르면 전면의 넓은 들판이 ‘廓然’하여 공정한 군자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아울러 세상일을 만나면 사사로운 꾀를 쓰지 않고 오직 의리에 따라 편안하게 대처한(物來而順應) 필암서원의 제향 인물 金麟厚의 精神世界를 추앙하게 된다.

정호는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인을 인식해야 하는데, 인이란 혼연히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 『二程全書』 권1, 「識仁」) 하고, 朱子는 “천지는 만물을 낳은 것을 심으로 삼는다.”(以爲天地以生物爲心者也 - 『朱子大典』 권32 「答張敬夫」)하여,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인데, 사람이 이를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朱子語類』 권105, 「仁說」)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만물을 낳고 낳은 천지의 마음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봄철의 자연경관은 주자에게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생생한 현상이 되었다.³²⁾ 濫溪書院의 諷詠樓는 멀리 보이는 花林洞에서 諷詠하면서, 玉山書院 無邊樓는 서원 앞 紫溪의 무성한 초목과 生意를 함께 하면서 天人合一하는 仁의 즐거움을 함축한다.

32) 『朱子大典』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다. 잇달아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생의를 드러낸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뉘라서 이 마음 함께 깨달을까.”(危亭俯南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敬은 수양 방법일 뿐 아니라 動靜·始終·知行을 관통하는 心法의 요체였다. 서원의 齋舍 당호에 居敬과 敬義를 내걸고 서원 전체를 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敬의 의미를 절실하게 체득하고자 했다. 道東書院 문루 水月樓가 대표적이다. ‘水月’은 주자의 詩 “삼가 천 년토록 전해온 성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을 달이 찬물을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에서 왔다. 聖인이 전해온 마음은 이른바 ‘18자 心法’ 곧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인데, 堯舜禹湯文武周公이 전해온 심법은 敬 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³³⁾ 가파른 산 언덕에 위치한 도동서원에서 가을 달빛 가득한 낙동강을 전망하는 경관은 ‘秋月照寒水’를 떠올린다. 이는 성인이 전해온 군자의 마음인 敬의 이미지이며, 도동서원이 제향하는 인물 寒菴堂 金宏弼의 정신세계이기도 하다.³⁴⁾

퇴계에서 시작된 조선 서원의 창립자들은 天理가 流行하는 자연경관이 천지의 마음(生意)으로서 仁을 지각하고 敬으로 心性을 함양하여 天人合一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학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 한국 서원은 隱微한 天理를 感而遂通할 수 있도록 서원 내부는 간명하게 조성하고

33) 『朱子全書』 卷66, 〈齋居感興二十首〉 제10 수, “放勳始欽明 南面亦恭己 大哉精一傳 萬世立人紀 猗歟歎日躋 穆穆歌敬止 戒熒光武烈 待旦起周禮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魯叟何常師 刪述存聖軌” 주석에 “熊(綱大)氏曰, 此篇 言堯舜禹湯文武周公傳心之法在乎敬” 하였다.

34) 『宣祖實錄』 권4, 선조 3년 5월 丙子, 〈문묘중사를 청하는 상소〉,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義理의 학문은 실로 金宏弼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우리 조선조의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마음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시다. 학문에 힘쓰지 10여 년 만에 動靜이 모두 禮法을 따랐고 持敬 공부를 오로지한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

서원 안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잘 전망할 수 있도록 건축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하였다. 산기슭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전면에 遊息空間 門樓를 세우며, 문루의 堂號를 전망경관 특성이 반영된 經傳과 聖賢의 말씀으로 짓고, 이 당호에서 제향 인물의 정신세계를 떠올리도록 한 것은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탁월하고도 고유한 전통이다.

III.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유식 경관

유장한 역사와 광대한 대륙 중국의 서원에 대한 고찰은 그 범위를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경관으로 제한하더라도 견문이 좁은 연구자에게는 감당하기에 벅차고, 따라서 흡족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書院’이란 명칭은 唐代 조정에 도서를 收藏 校勘하기 위해 담으로 둘러싼 가옥에서 기원했다. 나중에 민간에서 공부하는 사대부들이 精舍를 경영하거나 사사로이 ‘書院’이라는 명칭을 빌어 서적을 저장하여 독서하며 학문을 닦았다.³⁵⁾ 중국 서원은 宋代 이후 理學과 결합하여 신흥 교육제도로 크게 발전하여, 講學을 중심으로 서적의 보존·공자를 비롯한 성현에 제사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했다.³⁶⁾

千年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重創을 거듭한 중국 서원에 대한 연구는 儒教 뿐 아니라 道敎와 佛敎의 影響을 고려해야 한다. 오 백년이 채 못 되는 한국 서원을 조선의 전통적 陽宅 立地와 建築觀에 性理學的 世界觀이 결합된 產物로 고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하겠다. 우선 서원은 학문과 함께 휴식의 장소가 되어 풍경이 아름다운 명승지에 건립하고자

35)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28~31쪽, “書院之名 起唐玄宗時 麗正書院 集賢書院 皆建于朝省 爲修書之地 非士子肄業之所也 -『隨園隨筆』 卷14, 鄧洪波, 『中國書院史』, 武漢大學出版社, 2013, 1쪽에서 재인용. ‘院’은 담으로 둘러싼 가옥이라는 통칭이다 ... 唐代皇室에 설립된 ‘서원’은 담으로 둘러싸인 藏書 교서하는 곳을 가리켰다.”

36) 丁淳堯, 앞의 책, 1979, 48쪽.

했다. 유학의 학당인 중국의 서원은 입지, 강학과 수양방식, 교학 내용 등에서 중국에서 창시된 禪宗 佛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魏晉 이래로 중국에서는 불교 승려가 名山大川을 점거하고 寺刹을 세워 불경을 전수하고 불법을 논하였다. 특히 선종 불교에서 深山幽谷의 아름다운 곳을 점거하여 ‘명산은 승려가 거의 다 차지하였다.’(天下名山僧占多)라는 말이 생겼다. 불교 사원의 산간 경승지 입지는 서원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쳐서,³⁷⁾ 중국의 서원은 名山과 같은 景勝地에 입지하고자 했다.³⁸⁾ 따라서 著名 書院이 설립된 명산의 다수는 원래 불교와 도교의 근거지였다.

1. 中國 書院의 立地

北宋 시대부터 개인적으로 설립한 저명 서원이 많이 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악록서원(岳麓書院)·송양서원(嵩陽書院)·휴양서원(睢陽書院)·응天府書院 혹은 석고서원(石鼓書院)을 ‘天下 四大書院’으로 부른다.³⁹⁾ 천하 사대 서원의 으뜸이라는 악록서원은 湖南省 長沙市 嶽麓山 기슭에서 湘江을 앞에 둔 산골짜기에 입지하여, “샘물과 시내가 소반처럼 얹혀 있고 여러 봉우리는 첩첩해서 뻗어남(泉澗盤繞 諸峰疊秀)” 경승지이다. 이곳은 “땅이 남악 형산과 상강에 접하여(地接衡湘)” “큰 못과 깊은 산의 용과 호랑이의 기세(大澤深山龍虎氣)”을 蘊蓄하고 涵養하는 입지이며, “산을 배고 물이 감아 흐르며 병풍 같은 산을 마주하는(枕山環水面屏)” 중국 고대 풍수의 이상적 입지라고 하였다.⁴⁰⁾ 한국 서원의 입지 유형에 적용해보면 江景 입지에 해당하지만, 중국 서원의 규모가 한국의 서원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기

37)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40~42쪽.

38) 鄧洪波 彭愛學 主編, 『中國書院 攬勝』, 2000, 2쪽, 書院選地必擇形勝之區, 書院建築講究“善美同意”, 他以“天人合一”爲最高理想 刻意追求“情景交融”的意境

39)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33쪽.

40)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湖南美術出版社, 2009, 16쪽.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唐代에 이미 道林精舍가 창건되어 杜甫 등 문인들의 글이 있다고 한다. 서원 입구에 걸린 ‘千年學府’라는 扁額이 가리키는 것처럼, 976년(北宋 開寶 9)에 潭州 태수 朱洞이 강당과 재사를 지어 창건하고, 999년에는 書樓를 열고 先師十哲의 像과 72 賢人의 초상화를 그려 서원으로 확대 건립하였다. 眞宗(宋 3代 황제)이 1001년부터 7차례에 걸쳐 책과 땅 등 재물을 하사하고 여러 편액도 내렸으며 1015년에 ‘嶽麓書院’으로 사액하였다. 1167년 朱熹(1130~1200)가 이곳에서 張栻(1133~1180)과 만나 ‘朱張講會’가 이뤄진다. 1507년에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이 이곳에서 설파한 陽明學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1903년 근대교육제도 도입에 따라 호남 고등학당으로 개편되어, 毛澤東이 수업한 호남고등사범학교와 호남공립공업 전문학교로 바뀌었다가 1926년 省立 호남대학으로, 다시 1937년 國立 湖南大學이 되었다.

白鹿洞書院은 江西省 廬山 五老峰 동남쪽 기슭에서 酃陽湖(鄱陽湖)를 바라보는 자리이다. 소란한 市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수려한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삼림지대로 3면에 산림이 둘러서 초목이 풍요하고 1면이 溪流와 통하는 작은 분지이다. 학문을 강론하고 은둔하며 저술하기에 탁월한 입지이다. 白鹿洞은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廬山 안에서도 삼림이 가장 울창한 계곡으로 서원 바로 앞으로 작은 시내 ‘貫道溪’가 흐른다. 입지 측면에서 보면, 백록동서원은 紹修書院이나 玉山書院을 연상시키는 溪景 입지로 볼 수 있다. ‘白鹿洞’이라는 이름은 唐代 중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李渤형제가 은거하며 白鹿을 키우며 독서했던 곳으로 유명해졌다. 南唐시대에 이곳에 學館을 세워 ‘廬山國學’이라 불렀다. 북송 때 ‘白鹿洞書院’으로 개칭되어 宋代 4대 서원으로 일컬었으나 전란을 겪으면서 宋이 남쪽으로 내려온 후에 폐허로 변했다. 南康軍 知軍으로 부임한 朱熹가 1179년(淳熙6)에 백록동서원 옛터를 발견하고, 서원을 중건하여 후대에 서원교육의 준칙이 된 「白鹿洞書院學規」를 제정하였다. 「白鹿洞規」는 科擧의 노예가 된 당시의 官學 교육제도를 반대하고, 학문은 人倫을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德行을 우선하는

교육사상으로 정의했다. 「백록동규」는 대부분 조선 서원에서 강당에 게시되어 중시되었다.

嵩陽書院은 河南省 鄭州 登封市에 있다. 嵩山の 太室山 남쪽 기슭에 있어서 처음 이름은 太室書院이다. 입지한 땅이 송산의 남쪽(嵩山之陽)이므로 '嵩陽書院'으로 부른다. 송산은 중국의 五嶽의 하나인 中嶽으로 中嶽廟·嵩陽觀·少林寺·嵩岳寺塔 등 儒·道·佛敎 문화유산이 함께 풍부한 역사적 명승지이다. 송양서원의 입지는 “산봉우리들이 둘러서고 시내가 길게 흐르며 송백이 하늘로 치솟고, 환경이 고풍스럽고 그윽하여 아취가 있고 정숙한 경색이 마음에 든다.”(山巒環拱 溪水長流 松柏參天 環境古幽雅靜 景色宜人)⁴¹⁾ 하였다. 송양서원은 程子 형제가 강학한 洛學의 중심지로 新儒學 발상지의 하나이다. 北宋의 학자 楊時와 游酢가 정자 형제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程門立雪’의 故事가 있었던 곳이다. 應天府書院은 하남성 商丘에 있는데, 1035년 應天府府學으로 개칭하여 지방 관학으로 개조되었다. 石鼓書院은 호남성 衡陽 石鼓山 回雁峰 기슭에 있다. 과거 도교의 尋眞觀 터이다.⁴²⁾

武夷書院(武夷精舍, 紫陽書院)은 福建省 武夷市 「武夷山風景名勝區」지역 가운데 隱屏峰 아래에 입지한다. 무이 九曲溪의 ‘푸른 물이 붉은 퇴적암 산지를 휘감아 흐르는(碧水丹山)’ 무이산은 주자가 들어와 무이정사와 武夷九曲을 경영하기 전에는 道敎의 중심지로 ‘昇眞元化洞天’으로 알려졌다. 도교는 天下名山을 36洞天으로 나누는데, 무이산은 그 ‘제16 동천’이다.⁴³⁾ 무이구곡 제1곡에 8세기 당 현종 때 창건된 도교의 武夷宮이 있다. 무이산은 UNESCO 세계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考亭書院은 복건성 建陽市 玉枕峰 아래 높은 자리에서 麻陽溪를 멀리 내려다본다. 서원의 전망 경관은 “여러 산이 둘러 있고 맑은 시내가 질펀하게 퍼져 흐르는데, 농토가 펼쳐진 들판에 기와집이 이어지는(群山環抱 清流蕩漾

41)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97쪽.

42)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34쪽.

43) 余澤嵐, 『暢遊武夷』, 중국화보출판사, 2003,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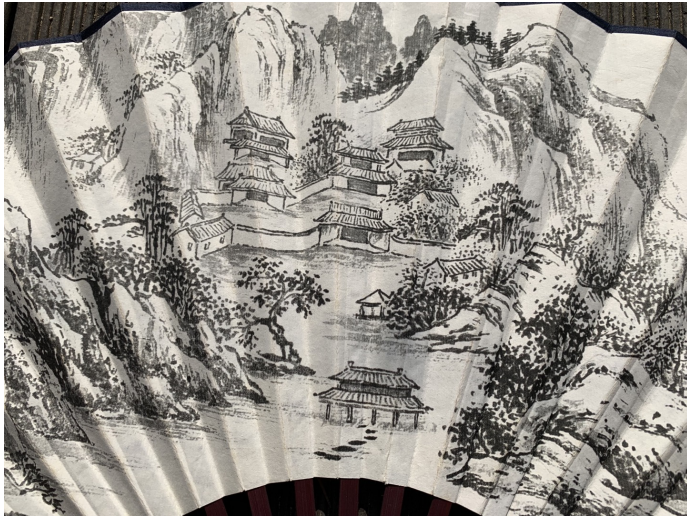
庄田布列 瓦舍相連” 건양 제일 산수라는 칭송이 있다.⁴⁴⁾ 考亭의 옛 별칭은 滄洲이다. 고정은 주자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곳이다. 晉溪書院은 山西省의 省都 太原市 懸瓮山 아래 晉水의 源頭에 입지한다. 진계서원은 晉祠의 옆에 있다. 국가 A4급 風景區(全國重點文物保護 單位)인 진사는 가장 일찍 세워진 중국 皇家園林으로 춘추시대 晉國의 宗廟이다. 진계서원의 처음 이름은 晉溪園으로 1526년(明代 嘉靖 5)에 태원의 가장 중요한 경승지 진사 옆에 세워졌는데, 현재는 진사박물관으로 새로운 시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⁴⁵⁾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著名 書院은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교와 불교의 명산이나 명승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1) 그러나 수적으로 다수인 현(懸)이나 향(鄉) 급의 지방적 서원은 교육 수요에 부응해서 접근성이 높은 도시(城市)와 마을의 내부에 입지하는 경향이다.(그림 2) 특히 청대 18세기 雍正·乾隆 연간에 국가의 서원 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들 지방적 서원은 부(府) 주(州) 현(縣)의 치소가 있는 도시 지역에서 官學化하거나, 시내 혹은 마을 중심부에 입지하여 관학을 보조하는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

지방급 서원으로 興賢書院은 주희가 소년기를 보냈던 복건성 송안현(무이 산시) 五夫鎮 五夫里의 교육중심 興賢村 안에 있다. 흥현서원이 있는 거리를 지금 ‘朱子巷’으로 부른다. 마을 단위의 서원인 桂馨書院은 산서성 임분시(臨汾市) 왕가대원(王家大院 視履堡 王家府)의 고급 서당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계형서원의 내부는 前中後 3개 정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마을 王氏들은 3단계에 걸친 공부를 성취해서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흥현서원이나 계형서원과 같은 지방급 서원은 대개 시가지나 마을 내부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다.

44)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82쪽.

45)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8쪽.



〈그림 1〉嶽麓書院 입지
(악록산 혁희봉 기슭에서 湘江을 바라보며,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風景勝地)



〈그림 2〉尤溪書院 입지
(주자가 태어난 尤溪縣 城內에 서원 외부의 官衙·城隍廟·각종 廟宇·寺刹과 並存한다. 文廟와 明倫堂은 별도 입지이다. -박물관에서 필자 촬영

2. 中國 書院의 空間 構成

중국의 서원은 한국의 서원과 건축 공간구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⁴⁶⁾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공간구성 차이는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기인한 규모의 격차, 서원의 기능 역할, 그리고 서원의 권위와 위상을 과시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5백 년이 채 못 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서원이 그 지명도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공간 규모인 것과 달리, 천여 년 역사의 중국의 저명 서원은 국가의 지원으로 중창과 확충을 거듭하여 지방 서원과 규모 차이가 크다. 약록서원은 976년 처음 건립 때 강당이 5칸,齋舍가 52칸이나 되었으며, 응천부서원은 1009년 學舍가 150칸으로 지어져, 수천 권의 책을 수장했다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서원의 學舍인 齋舍는 대부분 동-서재 합하여 4칸 내외 규모에 불과했다. 「岳麓書院記」에 보이는 천 명 규모의 학생은 예외이지만,⁴⁷⁾ 중국의 유명 서원은 조선 서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창설 초기의 모습을 유지한 순수한 私學으로 공간 규모가 작고, 내부 공간구성도 단순하고 단일한 축선에 배열되는 정형성이 뚜렷하다. 중국의 서원은 복수의 축선에 상이한 건물군을 이루어 건축공간 구성이 복잡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국 서원이 중시하는 서원의 기능 역할과 탁월한 교육기관으로 서원을 과시하는 방식이 한국 서원과 다르다. 교육을 위한 장서 기능이 중국

46)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139쪽, “일반적으로 중국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장서루공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한국의 서원과 비교해보면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한 것이 다르다. 그 위치도 서원의 중심축 선상에서 위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다. 배치의 모습으로 보면 중국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은 장서루이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은 위계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위치를 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 일부 서원은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 영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서원의 앞쪽 경계는 만수(泮水)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더 인공적인 조정에 의존한다.”

47) 丁滄堯, 앞의 책, 1979, 49쪽에서 재인용, “故諺曰, 道林三百衆 書院一千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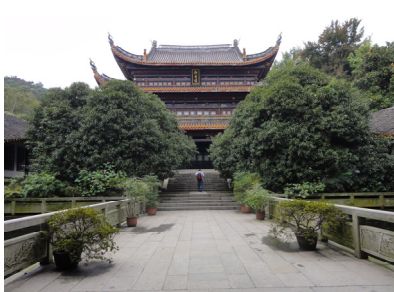
서원의 기원이었듯이, 유명 서원은 장서루(藏書樓)가 서원에서 가장 크고 탁월한 중심적 위치에 있고 강학공간은 장서루에 附隨해서 배치되는 모습이다. 중국 서원에서 祠堂은 별도의 축선에서 여러 종류의 사당이 群을 이루고 그 위치는 장서루 아래쪽에 해당한다. 선현의 사당을 중심 축선의 가장 높은 곳에 유일하게 배치하는 조선의 서원과 판이하다. 중국 서원의 祭祀 기능은 宋代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공통적으로 孔子와 그의 제자를 모시는 文廟 大成殿을 두고, 또 그 서원이 존송하는 인물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별도의 축선에서 사당군(祠堂群)을 이룬다. 중국 서원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성은 대형의 석조 패방(牌坊)을 비롯해서 반지(泮池)와 비석 등 서원의 권위와 역사를 과시하는 건축물들이 정원과 어울려 조성되어 있다. 패방은 조선의 서원에도 가끔 보이는 홍살문과 비슷하지만, 壯麗하고도 精巧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들 패방은, 御書樓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서루와 황제가 내린 어필 懸板과 함께, 이 서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주요 시설이라는 서원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중국 서원의 2개 주요 건물 군인 장서루-강학공간과 사당군은 별도의 문(門樓)를 통해 출입한다. 단일한 출입문을 통해 차례로 강학-제향 공간으로 진입하는 조선 서원과 다르다.

악록서원은 현존하는 중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千年學府’ 역사를 자랑했으며, 근 현대 교육기관으로 계승 발전하여 1926년 湖南大學이 된 서원이다. 악록산 기슭 赫曦臺 아래 입지한 악록서원은 장서루가 가장 높고 중심적 위치에 자리한다.(그림 3, 4) 장서루 앞 정면 축선 상에 강당과 그 앞 좌우의 齋舍(半學齋·教學齋)로 이루어진 강학공간, 그리고 여러 개의 대문들이 전개된다. 御書樓·장서루와 강학공간 사이에는 碑廊이 조성되어 있다. 서원 건물은 중앙 축선에 맨 앞 頭門(前門)으로부터 大門(中門) - 二門(儀門) - 講堂·御書樓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장서루 앞 아래 쪽에서 왼편으로 비껴선 축선에는 여러 개의 祠廟가 군집을 이루고, 사모 앞에는 다시 큰 건물인 공자의 大成殿과 文昌閣이 있다.



〈그림 3〉 嶽麓書院全景圖
(2013년 한국서원연합회 『중국서원 답사자료집』에서 인용)

악록서원에는 ‘書院八景’이 있는데, 모두 서원 경내의 정자와 園林이다.⁴⁸⁾ 비석과 정자·원림이 어울린 정원이 있는 악록서원 내부는 외부와 구별되는 別世界처럼 보인다.(그림 5)



〈그림 4〉 嶽麓書院 御書樓



〈그림 5〉 嶽麓書院 御書樓 아래 汲泉亭

주자가 중흥한 백록동서원은 입지와 경관이 다른 중국의 주요 서원과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서원 건축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백록동서원 역시

48)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호남미술출판사, 2009.

多軸線으로 구성된 중국 서원의 공간구성 특성이 뚜렷하다. 아래〈그림 6〉 白鹿洞書院 示意圖에 보이는 것처럼, 백록동서원의 건축물들은 지세를 따르는 남북방향의 5개 축선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⁴⁹⁾ 서원 대문을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건물군의 제1차는 先賢書院, 2차는 禮經殿(大成殿). 3차는 白鹿洞書院, 4차는 紫陽書院과 文會堂, 5차는 延賓館 春風樓가 중심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축에는 先賢書院과 朱熹記念館이 새겨진 頭門樓-二門-丹桂亭-報功祠와 朱子祠가 전개된다. 2차 축에는 櫺星門(石牌坊)-泮池-壯元橋-禮聖門과 禮聖殿이다. 예성전은 공자와 그 제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백록동서원 최대 최고의 건물이다. 3차 축에는 문루(白鹿洞書院)-御書閣-明倫堂-白鹿洞과 思賢臺(文昌閣)가 전개된다. 4차축은 門樓(紫陽書院)-崇德祠-文會堂이 구성되어 있다. 5차축은 門樓-林業學堂(근대건축)-延賓館-朱子銅像-春風樓가 전개된다. 여산 오로봉 기슭에 기대어 관도계 위에서 5개 건물군으로 구성된 백록동서원의 건축은 예성전과 어서각-명륜당이 중심을 이루고 좌우로 정원과 사당 그리고 숙소와 누각이 배치된 多軸線의 공간구성이다. 백록동서원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5개 축선의 건물군은 모두 석패방을 포함하여 각각 문루를 두고 출입문을 달리해서 구역을 구분하였다.

鵝湖書院은 서원건축의 軸線과 관련된 定型性的 측면에서, 단일 축선의 한국 서원과 비교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아호서원은 강서성 鉛山縣 鵝湖鎮 鵝湖山 북쪽 기슭 鵝湖寺 터에 세워졌다. 아호사는 당나라 대력(唐大歷 代宗 770년 경) 연간에 大義禪寺가 山頂에 암자를 지었다가 宋代에 山麓 官道 변으로 옮기고, ‘慈濟禪院’으로 사액되었다가 다시 ‘仁壽’로 사액되었다. 후대에 주자학이 중시되면서 朱熹·呂祖謙·陸九淵·陸九齡 四賢이 아호사에서 만나 논변을 벌인 ‘鵝湖之會’ 혹은 ‘鵝湖之辨’를 기념하는 四賢祠를 아호사 서쪽에 세워 서원의 기틀을 만들었다. 1250년 祠를 서원으로 바꾸자, 南宋 理宗 황

49) “書院古建築群由五大院落組成 是五組別特色的古代建築”-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5쪽.



〈그림 6〉 백록동서원 시의도(모식도)

제가 주희의 시호를 따라 ‘文宗書院’이란 이름을 내렸다. 明代 1454년(景泰 5)에 서원을 확장 중건하여 四賢의 塑像을 모시고 ‘鵝湖書院’이라 하였다. 당시 “장강 서쪽은 옛날부터 문헌의 고장이라 했고 서원 건설이 무수하게 많았지만 鵝湖의 이름만이 白鹿과 함께 천하에 알려졌다.”(大江以西古稱文獻之邦 書院之建不知有幾 惟鵝湖之名與白鹿竝稱天下)⁵⁰⁾ 하였다. 현재의 아호서원 건축 모습은 清代 康熙帝 때 3차에 걸친 중수확장으로 1717년(康熙 56)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원 면적이 2만1천 평방m로 넓고, 1992년 현재 건축면적이 5,536평방m에 달한다.⁵¹⁾

아호서원은 아호산 북쪽 기슭에서 북향坐南朝北한다. 북에서 남으로 진입하는 단일 축선 상에 예문(禮門-담장[照牆])-두문(頭門)-돌 패방(石坊)-반월형 연못(半池)-의문(義門)-강당-사현사(四賢祠)-어서루(御書樓)등 주요 건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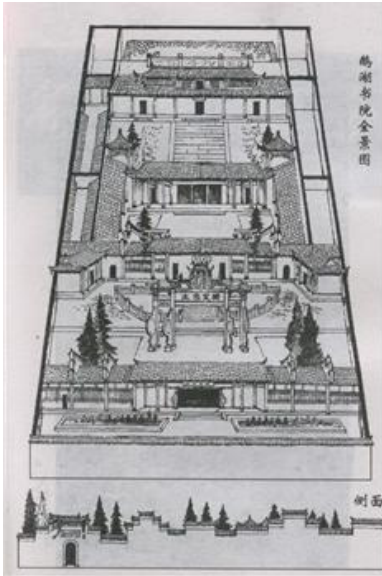
50)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序, 2004.

51) 王立斌, 앞의 책, 2004,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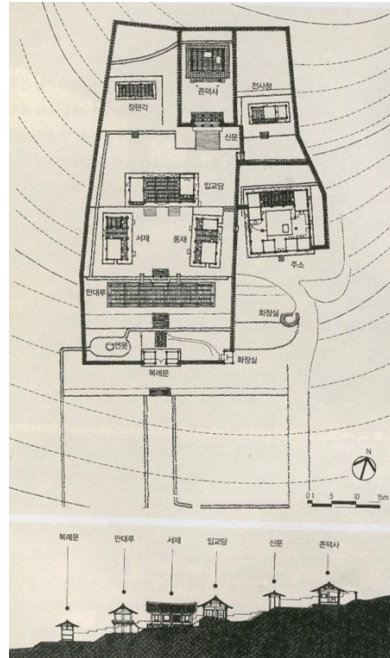
〈그림 7〉 鵝湖山 기슭 北向 立地한 鵝湖書院 -王立斌, 2004,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8쪽.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7) 지형이 북에서 남으로 올라가므로 장서루인 어서루는 남쪽이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서원에 들어가기 전 담장의 문이 속칭 西大門이라는 禮門인데 전면의 ‘鵝湖書院’ 편액은 강희제의 御書이다. 예문의 뒷면 편액은 ‘聖域賢關’이며, 동쪽 문 편액은 ‘仁山知水’이다. 서원의 정문에 해당하는 두문의 현판은 ‘敦化育才’이다. 두문 뒤에는 돌 패방(석 방)인데 높이가 7m 남짓하고 4기둥 3칸 5층(樓) 양식으로 크고 위엄이 있다. 靑石으로 건축된 패방 앞면의 ‘斯文宗主’, 뒷면의 ‘繼往開來’ 각자는 각각 2尺 크기이다. 패방 다음에 반월형 못 泮池가 있고 그 좌우에 碑亭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반지 가운데로 길이 10m 石拱橋(壯元橋)를 건너면 儀門으로 연결된다. 석 패방과 반지의 석공교가 연결된 부분의 경관은 석조 예술의 높은 경지가 느껴진다. ‘道學之宗’ 扁額이 걸린 의문을 지나면 강당이 나타나는데 의문과 사이에는 회랑을 조성하여 많은 비석이 자리한다. 강당 뒤에 朱熹·陸九淵·陸九齡·呂祖謙을 제향하는 四賢祠가 있다. 御書樓는 아호서원의 가장 남



〈그림 8〉 중국 鵝湖書院

외곽에 長方形 담장을 두르고, 서원 진입 축선에는 4개의 대문을 차례로 배치하고 다시 회랑식 건물과 담장으로 내부를 구획한 폐쇄적 공간구성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鵝湖書院全景圖〉, 2004.



〈그림 9〉 조선의 屏山書院

前底後高 지형에 낮은 담장으로 외부 자연에 개방된 공간구성(문화재청 자료)

쪽이지만 지형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3층 누각이다. 정문 위에 걸린 鍍金한 강희황제 御書 편액 ‘窮理居敬’이 있고 편액 아래 양쪽 기둥에 걸린 對聯도 강희황제의 下賜品으로 아호서원의 권위를 드러낸다.⁵²⁾ 대련의 시구는 주희의 시문에 나오는 연산현의 지명 ‘章岩’과 ‘石井’을 취해서, “장암에 달 밝으니 하늘 가운데 거울이요(章岩月朗中天鏡)”와 “석정에 물결 나뉘니 태극의 샘이로다.(石井波分太極泉)”이다. 四賢이 만나 토론한 ‘鵝湖之會’의 유학사적 의미를 賞讚하는 내용이다. 서원 내부 공간구성은 북에서 남으로 기운 경

52) 王立斌, 앞의 책, 2004, 93쪽.

사면의 축선을 따라 대문-패방-반자-강당-사당-장서루가 위계적으로 배치되는 전형을 보이고, 좌우 측면에 비석과 정자를 포함하는 소형 원림을 조성했다.

서원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여러 차례 국가의 대대적 지원으로 증축한 아호서원은 건축 공간구성에서 단일한 축선에 위계적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최고위에 御書樓를 둔 것은 한국 서원이 단일 축선의 최고위에 祠堂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서원 외곽과 내부에 공간을 구획하는 높은 담장을 세우고 축선 상에 대문을 4차레나 설치하여 서원 진입에 威嚴을 더했다. 국가의 관심과 전폭적 지원으로 重建 擴充을 거듭한 아호서원은 순수한 사학으로서 조선의 서원 공간구성의 전형성을 보이는 병산서원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서원 건축 공간구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알 수 있다.(그림 8, 9)

3. 中國 書院의 유식 경관(庭園과 展望 景觀)

중국의 서원은 대체로 높은 담을 둘러 서원 안과 밖을 구획한다.⁵³⁾ 따라서 서원 경내에서 서원 밖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조적으로 조선 시대 한국의 서원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담장을 사람의 키보다 낮게 하고 건물 전면을 개방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서원 안에서 서원 밖 자연경관을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원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전망하기 어려운 중국 서원은, 藏修와 遊息이 함께 하는 서원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원 내부에 정자와 비석, 연못과 원림 등이 병존하는 정원을 조성하여 유식 공간으로 삼았다. 특히 嶽麓書院의 정원은 ‘書院八景’으로 부르는데, 버들 연못에 안개 낀 새벽(柳塘烟曉), 도화 꽃 언덕의 붉은 노을(桃塢烘霞), 바람이 실어 오는 저녁의 연꽃향기(風荷晚香), 오동나무 그늘로 이어진 샛길(桐蔭別徑), 대나무 숲의 겨울 푸른빛(竹林冬翠), 굽은 시내의 샘물 소리(曲澗鳴泉), 푸른 못에서 물고기 바라보기(碧沼觀魚), 꽃 핀 축대에 앉아 보는 달(花墩坐月)이다.⁵⁴⁾

53) 王立斌, 앞의 책, 2004, 40쪽, “書院圍牆分內圍牆和外圍牆”

담장으로 서원 경내 외를 나누고 경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 서원의 특성이다. 그러나 심산유곡에 입지한 白鹿洞書院은 遊息 空間은 경내의 작은 정원뿐 아니라 서원 외부 溪谷 즉 貫道溪 일대를 포함한다. 白鹿洞書院을 중흥한 朱子는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 이름을 『論語』「里仁」의 “吾道一以貫之”에서 취하여 ‘貫道溪’로 정하고, 廬山 五老峰과 마주 대하는 자리에 손님을 맞는 亭子를 지었다. 나중에 朱子를 기념하여 江西提學副使 邵寶가 정자를 재건하여 ‘獨對亭’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림 9) ‘독대정’이란 주자의 학문만이 홀로 오로봉과 상대할 만큼 노성(老成: 壽)하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⁵⁴⁾ 정자를 짓고 그 전망 경관을 성현에 비유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濂溪를 경모한다는 한국의 소수서원 ‘景濂亭’과도 통한다.



〈그림 9〉 白鹿洞書院 獨對亭



〈그림 10〉 貫道溪 바위 각자 ‘枕流’

독대정 아래 관도계에는 枕流橋가 있고, 주자의 친필 ‘枕流’가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흐르는 시냇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枕流’는 돌로 양치질한다는 ‘漱石’과 함께 ‘枕流漱石’이란 문자로 사용되면서, 隱遁하여 학문에 沈潛하고 천인합일의 추구하는 道學者의 초연한 삶을 뜻하게 되었다. 관도계를 따라

54)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245~246쪽.

55)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4쪽, 邵寶가 지은 〈獨對亭記〉에 “五老之勝 有目共睹 非公(朱熹)莫之能當”이라 하고 또, “或謂峯以老稱 不獨以秀 以奇 而以其壽是 五老者 天始與始 地終如終 壽孰對之 謂公獨焉.”하였다.

암석에 다양한 서체로 새겨진 白鹿洞·砥柱·源頭活水·清如許·觀瀾·逝者如斯·自潔 등 붉은색 각자가 57개나 된다.⁵⁶⁾(그림 10)

다른 한편, 관도계 건너편 언덕에는 백록동서원 출신의 進士 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석판이 열을 지어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서원이 고급 관료를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려주는 급제자 명단은 한국 서원이 과거 공부를 의식적으로 멀리해 온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림 11〉 백록동서원 관도계 건너편 진사급제자 명단 석판

武夷山 九曲溪의 武夷書院은 주자가 50대 이후 은거하여 강학한 武夷精舍에서 기원한다. 武夷書院의 입지 건축과 공간구성, 그리고 특히 유식 공간은 개방적이어서 다른 중국 서원과 매우 다르다. 무이서원의 입지와 경관은 〈武夷九曲圖〉로 조선에 전해져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이서원은 무이산의 협곡에 입지하여 九曲溪에 가깝고 건너편 晚對峰을 마주보는 것이 조선의 江景 書院, 특히 屏山書院의 입지 및 전망 경관과 비슷하다. 주자의 「晚對亭」시에서 묘사된 展望 景觀과 屏山書院 晚對樓의 展望 景觀은 유사한 이미지이다.⁵⁷⁾(그림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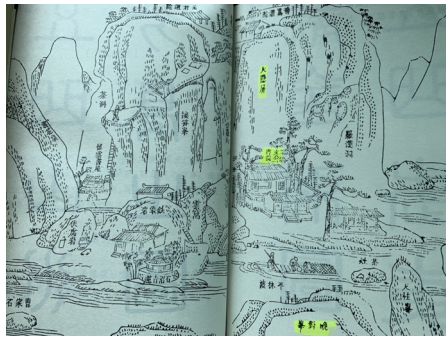
56)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4~115쪽.

57) 주자의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晚對亭

倚筇南山巔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올라
却立有晚對	멈추어 서니 만대봉을 마주하네.



〈그림 12〉隱屏峰 아래에서 晚對峰을 마주하는 武夷精舍



〈그림 13〉武夷書院(武夷精舍)와 晚對峰 -董天工, 『武夷山志』中.



〈그림 14〉무이서원의 정면과 뒷산 은병봉



〈그림 15〉무이서원 전방 경관 만대봉

주자는 武夷精舍를 짓고 은거하면서 그 입지와 경관을 기록한 「武夷精舍雜詠並序」에서 무이정사의 藏修 遊息 장소를 기술하고, 확장된 遊息 空間으로 '武夷九曲'을 「武夷棹歌」10首로 읊었다. 武夷精舍와 武夷九曲으로 실현된 朱子의 藏修와 遊息의 融合은 朝鮮에서 退溪의 「陶山雜詠併記」로 계승되고, 다시 大山 李象靖(1711~1781)의 「高山雜詠併記」로 이어졌다. 주자의 무이정사와 무이구곡은 조선 후기에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九曲文化'로 발전하여 한국의 서원과 藏修 遊息 文化에 큰 영향을 미쳤다.

蒼峭瀛寒空
落日明景翠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찬 하늘에 우뚝하고
지는 햇살 푸른 절벽 그늘을 밝히는구나.

IV. 한국과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유식 경관의 종합적 비교

본 연구는 朝鮮時代 韓國 書院의 固有性和 眞正性を 밝히기 위해서, 그 立地·建築 空間構成·遊息 空間을 中國의 書院과 比較 考察한 것이다. 비교의 前提로 한국과 중국의 서원은 歷史와 機能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千年의 역사를 가진 중국 서원은 藏書 기능에서 기원해서 점차 讀書과 講學의 장소로 발전하고 祭享 기능은 나중에 追加되었다. 특히 중국 서원은 道教와 禪宗 佛教의 영향을 받아 名山 名勝을 찾아 입지했다. 宋代 이후 서원은 私學으로 발전했지만, 著名 서원은 國家나 官의 지원을 받아 장기간 重創과 擴充을 거듭하여 複合的 建築 空間構成을 이루었다. 중국 서원은 官學化 내지 官學의 補助 기능을 가진 學校로서 科擧를 통한 人材輩出을 중시하고 그 일부는 현대 大學으로 발전하였다. 역사가 五百年에 못 미치는 조선 서원은 性理學者들인 先賢을 祭享하기 위한 祠堂建立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으며, 서원 건축에 대한 國家나 官의 支援은 間接的이고 例外的이었다. 따라서 서원의 명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創建 당시의 형식과 규모로 簡明 單純한 건축 공간이 유지되었다.

立地에서, 중국은 저명한 서원의 경우 名山 혹은 名勝으로 이름난 道教와 佛教의 터전에 입지한 경우가 많고, 地方 서원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이나 城市 내에 입지했다. 서원 설립의 동기를 先賢祭享으로 하는 다수의 한국 서원은 제향 인물의 緣故地에서 風水 形局을 고려하여 背山臨流의 地形에 입지했다. 불교 사찰의 터에 입지한 서원도 있으나, 다수 서원이 기존의 명승 명산과 무관한 제향 인물의 연고지에서 山川이 秀麗한 곳을 택하여 선현의 學德을 推仰하는 서원교육으로 名勝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사례에서 “山은 賢人 德分에 稱頌받고, 땅은 사람과의 因緣으로 名勝이 된다.”(山以賢稱 境緣人勝)는 말이 實感된다.

建築 空間構成에서, 조선의 서원은 그 知名度에 관계없이 공간 규모와 구

성에서 定形性이 보인다. 單一 軸線의 最高位에 祠堂을 배치하고, 左右 對稱의 講學空間과 門樓 중심의 유식 공간이 그 아래에 배열되는 조선 서원의 典型的 空間構成이 17세기 초에 一般化되었다. 중국 서원은 著名한 서원의 경우 공간 규모가 조선 서원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複數 軸線에 藏書-講學 공간과 祠堂 공간이 구분되어 建物 群을 이룬다. 중국 서원의 중심 축선에는 講堂-藏書樓가 배치되고 측면 축선에 祠堂群이 배치되며, 별도의 문루를 통해 진입한다. 강학공간에서는 장서루가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해서, 축선 상에 여러 개의 대문(門樓)과 石牌坊·泮池-講堂-藏書樓 순으로 배치된다. 건물들은 回廊으로 연결되고, 사이에 庭園이 조성되고 비석과 정자가 들어선다. 사당은 강학 공간과 별도 축선에서 사당군을 형성하여 孔子를 모시는 文廟와 각종 祠廟들이 群集을 이룬다. 서원 내부 공간은 높은 담장으로 외부 경관과 차단되고 건물들이 回廊이나 담장으로 구획되어 閉鎖的 空間을 구성한다. 중국 서원에서 장서루가 중심이 되고 복수 축선에 배열된 건축물 군은 서원이 藏書에서 기원했으며 祭祀 기능은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점과 오랜 역사를 통해 국가의 지원으로 增築이 진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조선 서원은 創建期에 형성된 定形이 대부분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부 서원에서 서원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 門樓가 후대에 부가된 정도이다.

藏書樓가 卓越한 중심이 되는 중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藏書 기능에서 서원이 시작했다는 점뿐 아니라, ‘御書樓’라는 이름이 함축하듯이 皇帝를 높이고 官學과 밀접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중국 서원의 발전 과정을 암시하는 象徵性이 있다. 한국의 서원에서는 國王의 자취는 賜額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 중국 서원에서는 건물 당호뿐 아니라 ‘學達性天’ 등 많은 御製 扁額을 자랑스럽게 게시한다. 境內의 石牌坊·泮池와 石橋·庭園의 亭子和 碑石群 등에서 서원의 威勢와 品格을 나타내는 裝飾的 要素는 官學을 補助하는 서원에 대한 國家의 支援을 誇示하는 것들이다. 대조적으로 한국 서원은 前低後高의 自然 地形을 활용하여 단일한 軸線 위에 位階的 左右對稱 配置로 整齊嚴肅한 禮空間을 具顯하고, 인간적 척도(human scale)에 따라 건축물의 크기와 간격

을 정하여 空間構成이 簡明하다. 人爲的 造景을 최소화하며 中庭은 최대한 비워두어서 내부 공간을 虛靜 淡泊하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서원은 그 威儀는 自然山川에 依託하고 卓越은 簡明 虛靜이 代身했다고 하겠다. 白鹿洞書院 등 여러 서원에서 進士及第者 명단을 게시한 것은 국가의 高級官僚를 양성 배출하는 중국 서원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배출한 科擧及第者를 게시한 서원은 한국 서원에서 보이지 않는다. 紹修書院의 경우 修學한 著名 人士 명단이 있지만, 과거급제자와는 무관하다.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遊息 空間(경관)이다. 중국 서원은 대체로 높은 담장을 둘러 外部 自然景觀 展望이 없고, 遊息 空間은 境內의 庭園이 된다. 서원 건물 사이에 연못·비각·정자가 함께 어울린 정원을 조성하여 서원 내부에 別世界를 연상시키는 人工的 자연경관을 창출한다. 한국 서원이 외부의 자연경관을 유식 경관으로 삼고 서원 내부에는 정원과 같은 인위적 조경을 최소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서원에서도 예외적으로 朱子의 유적지인 武夷·考亭 書院은 외부 전망경관이 탁월하다. 특히 주자의 武夷山 은거의 산물인 「武夷精舍雜咏併序」는 「武夷九曲櫓歌」와 함께 조선 유학자들이 서원을 天人合一의 공간으로 경영하고 精舍와 書院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九曲文化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朱子가 藏修遊息했던 白鹿洞·武夷·考亭 書院은 朝鮮의 書院과 類似한 立地이며, 강물을 展望하는 ‘背山臨流’의 自然景觀을 공유한다는 점은 朝鮮의 性理學者들이 朱子의 學問觀과 修養觀을 景慕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주목된다.

‘背山臨流’ 입지의 한국 서원에서 展望景觀은 유학자들의 궁극적 이상인 天人合一을 體得하는 현장이 된다. 서원에서 천인합일의 느낌을 얻도록 한국 서원은 生氣活潑한 自然景觀에 展望을 開放하는 방식으로 건축공간을 구성했다. 서원은 前低後高 地形에 입지하여 전면 자연경관을 전망하기에 유리하고, 建物은 開放的이고 담장(牆垣)도 사람의 키보다 낮게 조성한다. 天理의 流行을 體得하는 場所로 가장 앞쪽에 門樓를 둔다. 門樓의 堂號는 서원의 展望 景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經傳과 聖賢의 말씀에서 가져왔다. 門樓의 堂

號는 展望景觀의 特性和 그 儒學的 含意, 그리고 祭享 人物의 精神世界를 三位一體로 담은 記號가 되었다. 御書 扁額을 포함한 중국 서원의 당호에서 조선 書院의 門樓 당호와 같은 사례는 찾기 힘들고, 누각 기둥에 걸린 對聯 詩句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白鹿洞書院과 武夷書院에서는 서원 밖의 溪流 바위에 경관의 특성과 유학자의 정신세계를 새긴 刻字가 주목된다. 조선 서원에서는 玉山書院 앞 紫溪의 각자를 들 수 있다.

조선의 서원은 중국에서 서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立地·建築 空間構成·遊息 空間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固有性을 創出하였다. 임지에서는 명산 명승이 아닌 제향 인물의 緣故地를 선택하고, 건축 공간구성에서는 단일한 축선에 祠堂을 最高位로 하는 簡明한 禮空間과 人工 造景을 최소화하는 虛靜의 中庭 공간으로 克己復禮의 仁을 象徵的으로 再現하였다. 유식 공간에서, 중국 서원이 높은 담장을 두르고 내부에 인위적 정원으로 別世界를 창출한 것과 달리, 조선 서원은 開放的 建築으로 서원 안에서 전망되는 외부 自然景觀을 선택했다. 한국 서원이 人工的 정원이 아닌 無作爲의 자연경관을 유식 공간으로 삼은 것은 自然과 融合하여 하나가 되는 한국 傳統建築의 특성과 天人合一을 최고 가치로 하는 性理學의 自然觀 世界觀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된다. 인위적 정원이 아닌 자연경관을 선택한 한국 서원의 유식 공간은 朱子가 仁을 定義한 것처럼 ‘만물을 낳은 천지의 마음(天地生物之心)’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삼는(人之所得以爲心)’ 현상이 되었다. 문루 당호로 記號化된 展望景觀은 한국의 傳統建築 思想과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理念인 性理學의 天人合一觀이 결합되어, ‘自然과 人間의 合一’을 體驗하게 하는 독특한 事例이다.

【참고문헌】

- 『論語集註』, 『周易』, 『太極圖說』, 『朱子全書』, 『朱子語類』, 『禮記』, 『孟子』, 『退溪全書』, 『二程全書』, 『通書』, 『宣祖實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2021.
- Duncan, J.,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Jacques Benoist Mechin 著, 河野鶴代・横山 譯, 『庭園의 世界史』, 講談社學術文庫, 1998.
-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1, 한국서원학회 2011.
-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1, 2, 『문화역사지리』 25-2,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a, b).
- 김덕현, 「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문화역사지리학회, 29-4호, 2017.
- 김덕현,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31-1호, 2019.
- 김영모,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호, 2005.
- 董天工, 『武夷山志』中, 方志出版社, 2007.
- 鄧共波 彭愛學 主編, 『中國書院 攬勝』, 湖南大學出版社, 2000.
- 鄧共波, 『中國書院史』, 武漢大學出版社, 2013.
- 성백효,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3.
- 鵝湖書院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8쪽. 2004.
- 楊軍 王成玉 譯, 『程頤講易傳-白話伊川易傳』, 長春出版社, 2010.
- 余澤嵐, 『暢遊武夷』, 中國畫報出版社, 2003.
-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2004.
-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敬의 空間'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5호(통권7), 1986.
- 임석재,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컬처그래피, 2011.

丁淳堃,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9.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 정립 과정,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서원학회 주관, 『한·중 서원학회교류 10주년 기념 제7회 동아시아 서원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7.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호남미술출판사, 2009.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陳來,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1997.

허균, 『한국의 정원』, 다른 세상, 2002.

헤르만 폰 뢰클러무스가우 지음 권영경 옮김, 『풍경식 정원』, 나남, 2009.

휴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 (주)창비, 2017.

【漢文 抄錄】

韓國書院與中國書院立地空間構成遊息空間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tion, Space Composition and Rest Space of Korean and Chinese Seowon)

金 德 鉉(Kim Duk Hyun)*

本研究是對比較朝鮮書院和中國書院的立地,空間構成和遊息空間。雖然書院起源於中國,但朝鮮時代韓國書院被登載UNESCO世界遺產。因此需要研究以了解與中國書院不同的朝鮮書院的獨特性和真實性。在立地,受道教和佛教影響中國著名的書院建立在名山風景區。朝鮮的書院最看重人的緣故地,其次追求風水的活潑地。朝鮮書院一般都非常重視展望景觀,根據景觀類型可分為溪景·江景·野景。就書院的空間構成而言,首先中國的書院在空間尺度的和製度的根據位相有很大的差異。在朝鮮書院位相的差異主要與祭享人有關,書院的外貌關係不大。其次,在書院的空間構成中,朝鮮書院通常是與‘前低後高’的地形,它將建築物位階排列在一個軸上,以祠堂為最高位。中國書院以複數軸將藏書樓-講堂和祠堂群分開,以藏書樓為最高位。三是,中國書院威儀與卓越性誇示的方法不同。中國書院的聲望是在石碑坊柵欄(照牆)泮池和橋,華麗的御書樓等。朝鮮書院以簡明的建築和虛靜的中庭為整齊嚴肅的禮空間。朝鮮書院依賴自然而不是建築和造景。朝鮮和中國的書院最有意義的區別出現在遊息空間。一般來說,中國書院沒有外部景觀,遊息空間是境內庭園。在朝鮮書院的展望景觀中感知‘天人合一’的儒家理想,朝鮮書院創造了一個遊息空間如門樓為展望景觀。門樓的堂號取自儒教經傳和先賢的話。它可看以堂號為三位一體的記號。是包含了景觀的特點,儒學的意義,祭享人的精神世界。朝鮮書院門樓是自然融合的朝鮮傳統建築思想與朝鮮理學的相結合的獨特例子。

* Professor of Emeritu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dukhyunk@naver.com

Key word : 立地(location), 空間構成(spatial structure, 遊息空間(space of rest and strolling),
展望景觀(landscape view), 門樓堂號(house name of gate tower)

논문 투고일: 2022. 10. 27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